



Extended essay cover

Candidates must complete this page and then give this cover and their final version of the extended essay to their supervisor.

Candidate session number				
Candidate name				
School number				
School name				
Examination session (May or November)	May	Year	2013	

Diploma Programme subject in which this extended essay is registered: Korean A group 1/cat.2
(For an extended essay in the area of languages, state the language and whether it is group 1 or group 2.)

Title of the extended essay: "우한의 특징과 영향"(한국 문화 VS 미국 문화)

Candidate's declaration

This declaration must be signed by the candidate; otherwise a grade may not be issued.

The extended essay I am submitting is my own work (apart from guidance allowed by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 have acknowledged each use of the words, graphics or ideas of another person, whether written, oral or visual.

I am aware that the word limit for all extended essays is 4000 words and that examiners are not required to read beyond this limit.

This is the final version of my extended essay.

Candidate's signature:

Date:

Supervisor's report and declaration

The supervisor must complete this report, sign the declaration and then give the final version of the extended essay, with this cover attached, to the Diploma Programme coordinator.

Name of supervisor (CAPITAL letters)

Please comment, as appropriate, on the candidate's performance, the context in which the candidate undertook the research for the extended essay, any difficulties encountered and how these were overcome (see page 13 of the extended essay guide). The concluding interview (viva voce)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These comments can help the examiner award a level for criterion K (holistic judgment). Do not comment on any adverse personal circumstances that may have affected the candidate. If the amount of time spent with the candidate was zero, you must explain this, in particular how it was then possible to authenticate the essay as the candidate's own work. You may attach an additional sheet if there is insufficient space here.

This declaration must be signed by the supervisor; otherwise a grade may not be issued.

I have read the final version of the extended essay that will be submitted to the examiner.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 extended essay is the authentic work of the candidate.

I spent hours with the candidate discussing the progress of the extended essay.

Supervisor's signature:

Date:

Assessment form (for examiner use only)

Criteria	Achievement level		
	Examiner 1 maximum	Examiner 2 maximum	Examiner 3
A research question	2	2	2
B introduction	1	2	2
C investigation	3	4	4
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3	4	4
E reasoned argument	2	4	4
F analysis and evaluation	3	4	4
G use of subject language	2	4	4
H conclusion	1	2	2
I formal presentation	2	4	4
J abstract	2	2	2
K holistic judgment	3	4	4
Total out of 36	24		

“우화의 특징과 영향”
<한국 전래동화> VS <그리스 이솝 우화>

Extended Essay on Korean A

Name:

Candidate Number:

Word Count: 3711

I. 개요

아이들의 도덕심과 윤리적 가치실현을 위한 책임감은 문명의 발전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질수록 사라지고 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까운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리핀에 공부하러 온 초등학생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예절교육을 받지 못하여 기본적인 식사예절은 물론 주위 어른들을 공경하는 방법조차 모른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Extended Essay 주제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 규범 혹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지 못하는 어른들 모두에게 참된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시 상기시켜 주기에 충분한 <그리스 이솝 우화>와 <한국 전래동화>를 통해 현실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해결책의 한 방편으로 논문 연구에 착수 하였다. 각각 이야기들 속 등장인물을 통해 습득 할 수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국 전래동화와 그리스 이솝 우화를 비교하였을 때, 등장인물들이 비슷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일치하는 이야기들 중 4 편을 뽑았다. 한국 전래동화와 그리스 이솝 우화에서의 <별주부전>과 <토끼와 거북이>,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와 <당나귀, 여우, 그리고 사자>를 각각으로 묶어 비교, 분석하였다. 선정된 작품들 속의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특징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색 하기 위하여 풀잎 문학사의 『이솝우화, 2009』와 쿠뉴턴 코리아의 『애니메이션 한국 전래동화』을 바탕으로 많은 종류의 서로 다른 견해차이 보이는 인터넷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용으로 한국 전래동화와 그리스 이솝 우화의 의의 및 가치를 조사하였고 이솝의 생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을 끝낸 후, 각 이야기들을 작품의 설명 및 배경, 등장인물 분석 및 특징, 작품의 의의와 가치 및 교훈의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정리, 설명하였다. 이 Extended Essay 는 어린아이들이 우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삶을 배워나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우화 영향을 논제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우화 안에서 동물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한국 전래동화와 그리스 이솝 우화의 공통점과 문화적인 요소로 인하여 드러나는 차이점에 관하여 조사를 거듭할수록 우화 같은 아동 소설은 비단 어린아이들의 세계뿐만이 아닌, 어른들이 추구하는 이상세계 건설과 그를 추구하는 방법인 생활양식에 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나는 우화 소설이 얼마나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

Word count: 291

목 차

구 성

쪽 수

I.	개요	2
II.	서론	4
III.	본론	
	III-1 한국 전래동화의 특징	4
	1. 별주부전	5
	A. 작품 설명 및 배경	
	B. 등장인물의 분석 및 특징	
	C. 작품의 의의와 가치 및 교훈	
	2.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7
	A. 작품 설명 및 배경	
	B. 등장인물의 분석 및 특징	
	C. 작품의 의의와 가치 및 교훈	
	III -2 그리스 이솝 우화의 특징	8
	1. 토끼와 거북이	9
	A. 작품 설명 및 배경	
	B. 등장인물의 분석 및 특징	
	C. 작품의 의의와 가치 및 교훈	
	2. 당나귀와 여우와 사자	11
	A. 작품 설명 및 배경	
	B. 등장인물의 분석 및 특징	
	C. 작품의 의의와 가치 및 교훈	
IV.	결론	12
V.	참고문헌	13

II. 서 론

사람들은 어렸을 때 동화와 우화와 같은 아동소설을 많이 접한다. 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아동소설들은 그들의 어휘력과 언어적인 면에서의 어휘력 습득 및 향상을 도와준다. 우화는 전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도덕양식, 기본적인 예의범절, 그리고 올바른 삶의 양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깨우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현명하고 지혜로운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수많은 동화책들 중 몇 백 년 대대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와 이솝이라는 작가가 저술한 그리스 이솝 우화는 아동소설을 가장 대표하는 소설로 손꼽힌다. 한국 전래동화와 그리스 이솝 우화는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양식과 서술방식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써내려 간 소설이지만, 문화와 소설이 쓰인 배경의 차이 때문에 다른 점들을 많이 보인다. 몇 개의 이야기를 이용주가 옮긴 풀잎문학사의 이솝 우화에서 추출하고 전래동화 모음집에서 추출하여, 그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소의 제시를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표현 했는지, 등장하는 동물이 어떤 역할을 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이 동물이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또한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교훈과 철학을 발견하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 물들어있는 어른들에게 소개할 것이다.

한국 전래동화와 그리스 이솝 우화와 같은 아동문학은 문화유산의 예로 옛날 우리의 전통에 행해진 규범들을 다시 현대인에게 되새겨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동의 인지구조에 적합하여 유아교육에 효과적이며 애착형성과 분리불안과 같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치료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 아동발달적, 아동 교육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아동교육과 치료에 활용 할 수도 있다. Research Question 으론 두 가지를 뽑았다. 먼저, 「우화」란 동물이라는 소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잘한 사건을 나열하는 소설이다. 나는 이런 요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점에 의문점을 가지고 더 많은 조사를 하였고 조사를 하면서 많은 흥미로운 점과 그 효과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한국 전래동화와 그리스 이솝 우화의 창작 시기와 유래된 나라는 염연히 다르다. 다른 시대, 다른 나라와 또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두 우화는 같은 목적과 비슷한 스토리로 같은 성향의 동물 주인공이 등장한다. 두 우화 비교분석을 통해 어떤 문화적인 요소로 인하여 다른 점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 보았다.

III. 본 론

III-1 한국 전래동화의 특징

한국 전래동화는 오래 전부터 시민들에게 널리 구전되어 전해져 내려온 작자 미상의 소설로 문학적 관점, 도덕적 관점, 그리고 인류학적인 관점을 동시에 띠고 있다. 문학적 관점으로 동물들이 이야기 안에서 동물들이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거와 같이 비현실 요소의 등장은 독자들에게 유쾌함을 가져다 준다. 이런 쉬우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부터 예의범절과 교훈을 전해주며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며, 아동들을 위해 쓰인 소설로써 어린이들에게 재미를 주는

동시에 삶의 방향과 의미도 제공해주고 있다. 인류학적인 관점으로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관심, 역사, 미신, 종교와 같은 인간이 추구하는 꿈과, 목적, 가치관의 일치를 이야기 속에 넣어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인류학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 전래동화는 대부분 신화, 전설, 민담으로 주로 민담이 주류를 이루며 풍요롭지 못한 서민층 사람들로부터 구전되어온 구비문학의 일부를 어린 아이들의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 하여 쓴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전래동화는 주인공의 특성과 내용의 특성, 그리고 표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래 동화는 간결하고 추상적으로 쓰인다. 전래동화의 내용은 아동이 발달해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려하고 성취해야 하는 발달 과업에 대하여 알려준다. 주인공은 부유한 사람보다 궁핍하고 힘든 여건에서 살아가는 인물이 많이 등장하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 한 후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대부분 착한 사람은 성공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원선정악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별주부전

A. 작품 설명 및 배경

<별주부전>은 친숙한 동물들이 이야기를 전개 시키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하는 환상기법으로 쓰인 글이다. 이 글은 대한민국의 전래동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만큼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며 구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야기의 내용이 책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 마지막 자라가 죽는 장면에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수치심을 느낀 자라가 자살을 하였다는 이야기, 간을 가져오지 못한 죄로 용궁에 돌아가자마자 살해당했다는 이야기, 토끼가 복수를 하여 자라를 죽음으로 이끄는 내용 같은 결말이 다양하다.

이 이야기는 바다 속 용궁의 용왕님이 죽을 병이 걸린다. 병을 고치는 유일한 약이 간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용왕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토끼간이 필요하다는 소문을 들은 자라가 토끼를 속여 궁궐에 데리고 온다. 용궁으로 온 토끼는 3일간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갑작스럽게 굴러들어온 자신의 행복에 감사해 하고 있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토끼는 용왕님 앞에 끌려가 간을 꺼내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죽을 것을 안 토끼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간을 탐내서 빼놓고 다닌다는 핑계를 데고 간을 가져오게 허락을 해주시면 안되나요? 라고 물어 보았다. 용왕은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마지막 희망은 토끼였기 때문에 토끼가 간을 가져오도록 허락을 해주고 토끼는 자라와 함께 다시 육지로 가게 된다.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도망을 가고 자라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B. 등장인물의 분석 및 특징

별주부전 속의 자라에게 비치는 전반적인 시각은, 용왕님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선뜻 자발적으로 토끼간을 구하려 가는 점과 용왕님을 위하여 노력하고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아, 우리 사회에서 의리와 충성심이 강하며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꾃꿋하게 노력하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표현하였다. 반면에, 토끼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용왕님을 위해 간을 얻으려 하였던 자라는 우리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 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는 한편으로 영리하고 꾀가 많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혹은 실패에 부딪혔을 때 뛰어난 임기응변으로 잘 해결하는 인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자라의 달콤하게 부풀린 말을 통하여 욕심이 많아 자기욕심에 자기가 피해를 보는 사람으로 표현되었다.

C. 교훈 및 가치와 의의

이 글을 쓴 작가는 이 글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에게 혹은 인간들에게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 해야 하고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고 있다. 이 글 안에서, 주된 인물로 토끼와 자라가 등장하고 그 두 인물의 관점에 따라 전하고 싶은 주제도 달라지고 있다. 먼저, 자라를 관점으로 충성심, 유교사상, 권선징악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보자라는 주제를 생각할 수 있다. 용왕님의 안위를 고려하여 목숨을 걸고 육지를 향해 달려간다. 이런 그의 자발적인 행동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여 토끼간을 구하러 가지 못하는 다른 신하와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토끼 꾀에 속아 넘어간 즉시에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충성심의 부족에 대해 한탄하고, 그가 섬기는 용왕님과 사직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을 보아 그에 충성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이런 그의 행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유교적 사상을 간접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공경하자라는 주제를 전달하며 인생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용왕님을 생각하여 충성심을 다하려고 하였던 자라지만 토끼의 목숨 즉,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자라는 악한 인물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요즘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어떤 일도 마다치 않고 한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악하여 결국에 죽음을 맞이한 이런 자라를 통하여, 선한 사람은 복 받고 악한 사람은 피해를 본다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간접적으로 들어내고, 자신만 알고 자신만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엔 파멸한다라는 내용도 알려주고 있다. 토끼의 입장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자. 즉,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토끼를 통하여,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는 토끼의 욕심이 얼마나 그 자신을 힘들게 하였는지 알 수 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말할 것 없이, 자신이 가진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토끼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직면 하였을 때 재치 있게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한 장면을 통하여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과 같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재치 있게 행동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다.

또한, 토끼는 한 시대 안에서 상류계층에게 편 박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인물로도 표현하며 특정한 시대를 비판하는 목적을 가졌다. 수궁 안의 사직들을 상류계층으로 토끼를 선량한 시민으로 분류하면서, 사직들이 토끼의 간을 빼앗아 가려 하는 거와 같이 시민들이 사회에서 받는 억압과 아픔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에는 토끼가 그들로부터 승리함을 보여주면서 불공평하고 힘든 우리사회를 혜학적으로 풍자하는 인물로도 묘사되고 있다.

2.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A. 작품 설명 및 배경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한국의 설화뿐만이 아니라, 이미 널리 퍼져있는 동물 담 (아르네 톰슨 유형 155)이다. 이 이야기는 호랑이와 선비가 주된 인물로 등장한다.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인간의 약점을 언급하는 동시에 기독교인의 관점에선, 종교적인 면도 드러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설화로 한국 전래동화의 특성답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전래 동화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변화나 그에 따른 이야기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에서는 선비가 등장하지만 어떤 이야기에서는 나무꾼이 등장하거나 심마니(산삼을 캐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가 등장한다. 이런 등장 인물의 변화로 인하여 ‘선비가 호랑이를 불쌍하게 여겨 구덩이에서 끼내준 것’ 혹은 호랑이가 심마니에게 산삼이 많은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심마니가 호랑이를 구해주는 내용의 이야기도 있다.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는 마을사람들이 호랑이가 마을사람들을 계속 해치자 마을 서당의 훈장은 허방다리를 맴다. 어느 날, 선비가 산길을 걷던 도중에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간 선비는 허방다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호랑이를 발견하게 된다. 선비는 비록 호랑이가 무서웠지만, 호랑이가 불쌍하고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을 확신이 들어 그를 구해준다. 하지만 허방다리에서 나온 호랑이는 배가 고팠고, 허방다리를 파놓은 인간에게 분개하여 그 분풀이로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겁에 질린 선비는 저만치 있는 황소와 소나무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잡아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자고 한다. 황소에게 가서 물어보니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자기들을 종처럼 매일 부려먹는다고 잡아먹으라고 한다. 소나무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매일 베어서 뭘감으로 쓰고 집을 짓는 곳에 쓴다고 잡아먹어도 합당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호랑이가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때 선비는 저만치서 걸어 오는 토끼를 보고 마지막으로 물어보자고 한다. 토끼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자 토끼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호랑이에게 허방다리로 다시 들어가 보라 하였고 그 말에 속아 호랑이는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토끼는 선비에게 가던 길을 계속 가라고 하였다.

B. 등장인물의 분석 및 특징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에서는 사람, 호랑이, 토끼, 소나무, 황소가 등장한다. 각 인물들이 가진 두드러진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며 동물들을 통하여 인간의 약점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야기 속의 호랑이는 속물적인 우리사회의 강자의 모습을 대표 하고 있다. 소나무와 황소는 사리분별을 잘 못하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회적 강자의 권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다. 또한, 호랑이, 소나무, 황소는 복수에 불타올라 특정 사람들이 한 잘못들을 통하여 그 사람과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이용하여 해코지 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반면에 선비는 우리 사회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고 토끼는 지혜를 통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해결해주는 혁명한 사람이다.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교훈을 전해주는 것이 목적인 우화소설의 특성으로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현대 기독교인의 관점으로도 재해석이 된다. 항상 죄인인 우리 자신을 호랑이로 표현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선비로 표현하였다. 항상 선의를 베푸시고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도와주시지만 결국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다 토끼라는 존재에 의하여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된다.

C. 교훈 및 가치와 의의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한국 전래동화 중 우화로 많은 동물들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전개하며 아이들과 어른에게 심오한 주제와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이 글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강자들의 횡포로부터 벗어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혜로 상황을 대처하자는 것이다. 선비가 호랑이라는 강자에게 속아 넘어가 호랑이를 구출해 주지만 결국, 호랑이는 자신의 힘으로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요즘 사회에서는, 정치를 통해 권력이나 돈의 권력에 의하여 인간들 사이에 힘이 형성이 된다. 물론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거나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생각으로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들을 괴롭히고 더욱 곤경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에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하여 파멸하고 다시 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토끼를 통하여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과 같이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면 잘 해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 호랑이를 가두기 위해 허방다리를 파놓은 것, 나무를 떨감을 배고 농사를 짓는 데에 황소를 부려먹은 것에 대해 잘못을 물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선비는 곤경에 처한 호랑이를 구해준 것이기 때문에 소나무와 황소의 재판은 성립할 수 없다. 호랑이, 소나무, 그리고 황소는 자신을 이용한 사람들의 잘못을 빛대어 그렇지 않은 선비에게 벌을 주어도 마땅하다는 재판을 내렸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복수에 의해 피해를 보는 호랑이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이 겪은 수모와 어려움 때문에, 분노를 동반한 복수는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방면으로는 현대 기독교의 신자들의 행동양식에 대해 비판하며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호랑이를 우리자신에 빗대고 예수님을 선비에 빗대어 호랑이가 허방다리에 빠졌을 때 선비가 구해준 것처럼 항상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 지나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 하지만, 그런 자비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과 존재를 의심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호랑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해준다. 마지막에 토끼가 호랑이를 다시 재판하는 것과 같이 먼 미래에 그들의 행동을 어떤 누군가가 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III-2 그리스 이솝 우화의 특징

한국 전래동화가 작자 미상에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구전되어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 것과 비슷하게 그리스 이솝 우화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다. 다만, 그리스 이솝 우화전파의 시발점은 이솝이라는 작가에 의해 시작하였으며, 한국 전래동화는 우화, 동화 등 다양한 아동소설의 형식이 나타나는 반면 그리스 이솝 우화 안에는 우화가 주류를 이룬다.

그리스 이솝 우화는 고대 그리스의 우화집으로 동물들을 등장시켜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양식과, 모습들을 묘사하는 동시에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2000년 전 이솝이라는 작가에

의해 써서 전해지다가, 라 풍텐이라는 프랑스 시인에 의하여 17세기경 정리된 우화집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 이솝 우화는 많은 유래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소포스의 이야기>라는 우화집이 BC 5 세기에 존재하였으며 데메트리우스, 바브리오스, 파에도르스 같은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발전하여 현대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 이솝 우화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는 동물이 사용되어 종교규범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통찰력 있는 관점으로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표현한 이야기가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자 아프리카 소아시아 인도와 같은 곳의 왜래 우화도 아이소포스 우화집 속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리스 이솝 우화는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시대에 와서 사람들 속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문학세계에서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5대 희극과 같이 유명한 소설의 주류에 끼게 되었으며 고대 그리스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남게 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솝은 그리스 우화집 작가로 여겨지는 인물로 아이소포스(Aisopos)의 영어식 표기 이름이다. 현재 그는 전설 속의 인물로 그가 실존 인물임을 밝히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였다. 진위가 뚜렷한 자료는 없어 그가 트라키아 출신이라는 가설과 프라지아 사람이라는 설도 있다. BC 5 세기의 헤로도토스로부터 이솝은 BC 6세기에 사모스섬에 있는 야돈몬이라는 사모스인의 노예였고 1세기에 이집트에서 쓰인 전기를 살펴보면 해학, 화술, 천부적인 기지에 의하여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 바빌론의 리쿠르고스 왕의 수수께끼는 푸는 혼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 또한 BC 6세기에는 리디아(혹은 류디아)의 왕이었던 크로이소스의 조언자였고 그의 총애를 받아 재계에 출입하며 큰 명성을 떨쳤지만, 왕명에 의하여 델피신전에 방문하였다가 귀도 하는 과정에서 피살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하였고 정확한 시기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아마 이솝이란 인물은 동물을 주된 인물로 사용하여 쓴 우화들의 작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솝 우화’는 곧 ‘우화’를 뜻하게 된다. 많은 나라에서 다른 우화, 전설, 설화 같은 이야기들이 이솝 우화집에 포함되어 그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였지만 헤로도토스와 소크라테스 등으로부터 그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있으며 그의 존재와 글쓰기에 천부적인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 토끼와 거북이

A. 작품 설명 및 배경

가장 잘 알려진 그리스 이솝 우화 중 하나인 <토끼와 거북이>는 토끼와 거북이라는 두 동물이 나와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이 특징이며, 각 동물에 작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동물들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내용을 전개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달리기가 정말 느리다고 놀린다. 그에 화가 난 거북이는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신청하고 그들은 달리기 경주를 한다. 밤이 빠른 토끼는 먼저 결승선 전까지 가서 여유를 부리며 나무 밑에서 거북을 조롱하면서 쉬다가 잠이 들었지만, 느릿느릿 기어오는 거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 결승선 앞에 도착한다. 여유를 부리던 토끼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거북이한테 진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간단한 내용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단순한 노력형인간의 중요성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자만심이 한 인간의 성공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준다.

긍정적인 생각과 미래지향적인 꿈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까지 알려주고 있다.

B. 등장인물의 분석 및 특징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두 인물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흔한 두 행동양식을 대표하고 있다. 토끼는 천부적으로 재능이 뛰어나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신이 목표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인물을 대표한다. 즉,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영재 혹은 천재들이 토끼의 집단 안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만심으로 인해 그의 일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거북이는 어느 방면에 특별하게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자만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상황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혼들리지 않고 꾫꼿하게 노력하는 노력형 인간을 대표 하고 있다.

C. 교훈 및 가치와 의의

요즘 아이들은 자신이 목표한 바에 대해 포기가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방대한 양의 목표를 설정한 후 세부적인 계획은 지키지는 못해놓고, 목표에 대해서는 능력의 한계를 탓하며 포기한다. 혹은,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만 뛰어나도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가 세운 목표에 대하여 소홀해 지는 경향도 보인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북이는 실패하여도 즉, 기본적인 재능이 타고나지는 않았더라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는 노력형 인간을 표현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거북이를 승리로 이끌었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어느 누가 봐도 육지에서 달리기로 거북이는 토끼를 절대 이길 수 없는 동물이다. 하지만, 그는 전력을 힘을 다하여 달리고 또 달린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토끼를 이기게 된다. 이것은 어떤 일에 비록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끝까지 고군분투하여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토끼를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이 한 사람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준다. 반면에, 우화 안에서의 토끼는 약삭빠르고 사회에서 선천적으로 태어난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만심에 빠져 하락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능력만 믿고 노력을 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학교에서도 위낙 태어난 재능 즉, 머리가 뛰어나 자기 공부에 소홀히 하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뛰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글 속의 토끼가 자만심을 가져 편히 쉬고 있을 때처럼 여유를 부리며 뚜렷한 목표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낸다. 이 글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는 이 시간에도 어떤 누군가는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주제를 말해 주며 항상 자신이 계획한 바는 지키자라는 주제를 간접적으로 들어내고 있다.

2. 당나귀 여우 그리고 사자

A. 작품 설명 및 배경

그리스 이솝 우화 <당나귀, 여우, 그리고 사자>는 제목 그대로 3마리의 동물이 등장한다. 세 동물들의 대화로 내용이 전개되며 아주 짧은 이야기로 흥미롭고 간략하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의 배신, 즉, 은혜를 모르거나 우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로 협동을 하여 어떤 일을 해쳐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한 마을에 여우와 당나귀가 살았는데 그들은 서로 힘들 때 의지하고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같이 축하해 주는 친구관계를 맺었다. 어느 날, 여우와 당나귀가 숲 속을 걷던 도중에 사자를 만나게 된다. 당나귀는 곧바로 여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싸울 준비태세를 갖추었지만, 여우는 곰곰이 궁리만 하고 있었다. 여우는 사자에게 달려가 ‘자신을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신다면 당나귀를 곤경에 처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몸집이 큰 당나귀를 보고 순간 이길 자신이 없었던 사자는 여우의 말에 동의하였고 여우는 당나귀를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게 되었다. 당나귀를 빠뜨리고 사자에게 인사를 한 후 떠나려는 순간 사자는 ‘친구와의 우정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당나귀를 함정에 빠뜨린 녀석과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당나귀보다 여우를 먼저 잡아먹게 된다.

B. 등장인물의 분석 및 특징

이 이야기 속 동물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호랑이와 길 중간에서 부딪쳤을 때도 여우를 보호하려고 하는 당나귀를 살펴보자. 비록, 당나귀는 몸집만 커지 사자보다 힘이 없는 것은 물론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당나귀는 그 상황과 직접 부딪히며 해쳐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 당나귀는 우리사회에 살아가면서 항상 정직하고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항상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인물을 표현하고. 그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여우를 보호하고 그 상황을 무사히 해쳐나가려는 것을 보아서 남을 잘 배려할 줄 안다. 반면에, 여우는 매우 교활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리저리 살피는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된다.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리 저리 살피는 그런 인물이다. 이익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며 가식적으로 대하고 이익을 얻은 후에는 가차없이 떠나는 그런 사람을 그리고 있다. 마지막에 사자는 여우에게 훈계를 하며 벌을 주는 올바르고 사리분별 있는 인물로 표현되는 듯 보이지만, 당나귀에게 한 잘못을 제 3자 여우를 이용하여 합리화 시키려는 약은 인물로 소설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

C. 교훈 및 가치와 의의

이 이야기는 우정을 지키고 배신을 하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동물이 상황을 전개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여우와 당나귀는 사자에게 잡아 먹히고 만다. 여기서 우정을 파괴하고 배신하면 그 친구한테 불이익을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을 보여준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산다’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듯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뛰어난 임기응변과 주위 사람과의 협동으로 일을 해쳐나갈 수 있는데,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소중한 사람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다른 더 쉬운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물질 만능주의와 비리가 판치는 요즘 세상에서, <당나귀, 여우, 그리고 사자>라는 우화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였을 시에 어떤 피해를 보는지 알려 줌으로써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알려준다. 여우도 배신을 하고 사자가 목숨을 빼앗으려 할 때 후회를 하였다. 작가는 아이들에게 후회 하기 전에 똑바로 행동하자라는 교훈도 전해주고 있다.

또한 사회생활을 이미 경험한 학생들과 어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며 반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살면서 최소한 한번은 당나귀가 되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아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 기억 속에서 지워 지지 않는 죄악의 경험을 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가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우정을 짓밟고 배신한 여우와 같은 인물이 되어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남의 잘못을 내세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자 같은 인물이 되어 본 적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미 사회생활을 경험한 학생과,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전에 했던 일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III. 결 론

한국의 전래동화와 그리스 이솝 우화를 통하여, 우화란 인간의 행동양식과 우리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동물들을 통하여 나타내고 이런 동물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해준다. 우화의 등장인물들은 대부분이 동물들이며 이들이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몇 가지 있다. 먼저, 한국 전래동화와 그리스 이솝 우화소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에게 교훈을 전해주는 것이다. 4-7살 글을 읽기 시작한 아이들에게는 깊은 철학적인 내용의 책은 이해하기 힘들다. 우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동물들로 아이들에게 친근함을 가져다 준다. 또한 동물들이 말을 하거나, 육지 동물이 바닷속에 들어가거나, 요술을 부리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며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 더 빠져들게 만들어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교훈을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아이들에게 교훈을 전해주는 목적을 가진 우화이지만, 이 이야기는 사회적 모순들을 풍자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이런 풍자적인 요소로 인하여 독자들의 계층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동물들과 비현실적인 요소들은 간접적으로 사회를 해학적으로 신랄하게 풍자하고 허를 찌르는 역할을 한다. 직접 사회 속에서 잘못된 우리의 행동과 도덕적인 결함을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에 <당나귀, 여우, 그리고 사자>와 같은 그리스 이솝 우화처럼 동물들의 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현재 사회인의 행실을 비판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행하였던 행실에 대하여 회상하고, 행동에 반성 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두 우화소설의 공통점으로, 한국 전래동화와 그리스 이솝 우화는 아동들과 사회적 인간들에게 교훈을 전해주거나 풍자하는 비교적으로 짧은 이야기이다. 그리스 이솝 우화의 모든

소설에는 특정한 동식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서 짧게 내용을 이끌어간다. 비슷하게, 한국 전래동화에서는 전반적으로 동물들이 등장하며, 주인공이 동물이 되어 이야기를 전개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인 사람이 이야기를 전개하며 중간마다 동물이 나오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한 이 두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전파되어 왔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약간씩 다르거나, 결말 부분의 내용이 변형이 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마무리 짓는 우화소설은, 특정한 동물들이 하는 두드러진 역할이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등장 인물의 관점에 따라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달라지며, 문화적 관점에서 표현하고 생각하는 동물의 특성에 따라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스 이솝 우화와 한국 전래동화는 문화적인 요소로 인하여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다. 그리스 이솝 우화 안에서는 사자가 많이 등장한다. 로마에서 흥행했던 콜로세움 경기를 통해서, 사자는 유럽에서 가장 힘 쌤고 맹렬한 동물을 대표한다. 이런 문화적인 요소로 인하여 그리스 이솝 우화 안에서 가장 우세한 위치해 있는 인물은 사자로 표현이 된다. 반면에 한국 전래동화에서는 사자대신에 호랑이가 가장 무섭고, 힘이 쌤고 권력 있는 존재로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 호랑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중의 하나이다. 우리 조상은 예전부터 호랑이를 신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여 숭배를 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는 가장 권력이 있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표현이 된다. 이처럼, 같은 우화장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전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현대인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주는 교훈이 비슷한 점을 볼 수가 있지만, 지역적 문화적 차이는 등장인물 및 배경에 있어 확연히 차이점을 보였다.

IV. 참고문언

"NAVER 지식백과".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14&docId=540676&mobile&categoryId=1614>에서 검색된
날짜: 2013년 2월 1일

"NAVER 지식백과". 별주부전: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423&docId=939848&mobile&categoryId=3423>에서 검색된
날짜: 2013년 2월 1일

"NAVER 지식백과". 이솝이야기: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34932&mobile&categoryId=20000079>에서 검색된
날짜: 2013년 2월 1일

"NAVER 지식백과". 이솝우화: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69&docId=71227&mobile&categoryId=1090>에서 검색된
날짜: 2013년 2월 2일

"네이버블로그". (2010년 3월 25일).

<http://blog.naver.com/cocobe4you?Redirect=Log&logNo=60104281153>에서 검색됨

로하스팜. (2007년 04월 03일). "영어회화 6공식". Ass, Fox, and Lion (당나귀, 여우, 그리고 사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acnopia&logNo=130016366060>에서 검색된 날짜:

2013년 2월 1일

"스포츠등지(sport nest)". (2011년 12월 2일). <http://www.sportnest.kr/1175?top3>에서 검색된 날짜:

2013년 2월 7일

"애니메이션 한국 전래동화."

영림카디널. (2005). "이솝우화 123가자." 영림카디널.

풀입문학. (2009). "이솝 이야기." (김용주, 역자)